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42호 / 6월 27일

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패턴 변화와 특징

1.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패턴 변화

-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.
- 과거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으로 연해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던 패턴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연해지역의 임금상승과 해외시장 개척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- 또한 선진국에 대한 투자도 과거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던 패턴에서 시장정보 및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고 있음.
- 부족한 국내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도 늘어나고 있는바 러시아, 중동,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삼림 개발, 유전 등을 공동 개발함.
- 한편,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가 국유기업의 그것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, 이는 민영기업의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국내자산을 해외에 분산시켜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고려된 것임.

2.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및 특징

- 2001년 9월 현재 무역회사를 포함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총 6,513건이고, 전체 계약금액은 118억 달러(이 중 중국측 투자액 79억 달러)였음.
 - 업종별로는 무역투자가 39.2억 달러, 제조업생산 투자가 17.6억 달러(그 중 대외가공무역 8.7억 달러), 자원개발 14.3억 달러, 농업 1.5억 달러, 교통운수업 1.3억 달러 등임.
- 투자 형태가 과거에는 무역투자 중심이었던 반면, 최근에는 생산기지 건설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, 對개도국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.
 - 지역별로는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투자가 46.8%, 북미 13.7%, 아시아 11%, 아프리카 9.2%, 남미 7.5% 등임.
 - 단일지역으로는 홍콩이 35.2억 달러로 가장 많고, 미국 6.5억 달러, 캐나다 4.3억 달러, 호주 3.8억 달러 등임.
- 자원개발형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투자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음.
 - 2001년 9월 현재 자원개발 투자는 137건, 투자액은 14.3억 달러로 건당 평균투자액이 1,046만 달러에 달해 무역투자의 112만 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음.
 - 주요 자원개발 투자는 ▲러시아와의 극동지역 삼림 공동개발, ▲서부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어족자원 공동개발, ▲수단, 중앙아시아, 인도네시아에서의 석유 공동개발, ▲호주, 포틀랜드, 잠비아, 몽고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등임.
- 대형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 - ▲캉지아(康佳)는 인도, 인도네시아, 멕시코에 1,000만 달러 규모의 컬러

TV 조립공장, ▲꺼리(格力)는 브라질에 2,000만 달러 규모의 에어컨 공장, ▲珠海華電公司是 캄보디아에 4,800만 달러에 달하는 디젤엔진 공장 등을 설립함.

- 한편, 하이얼, 마이쌍(邁向), 중썩(中興) 등 일부 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선진기술을 직접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.

3. 해외투자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

-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바 과거에는 해외투자를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폄하하기도 하였으나,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과 부족한 국내자원의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음.
- 그러나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환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바,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투자를 결정하기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.
- 중국정부가 <해외투자법>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, 여전히 투자항목 및 투자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임.
- o 예를 들어 아프리카·남미·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광물자원, 농업, 어족자원 개발 등을, 동남아·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생산기지 이전 등을 장려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예상할 수 있음. (***)